



# 여름철 병해충 철저 방제기술

## 오리나무잎벌레

오리나무잎벌레는 성충과 유충이 오리나무류, 박달나무, 개암나무 등의 잎을 가해하며 지피물 밑 또는 흙속에서 월동하고 월동한 성충은 4월하순부터 출현하여 잎을 엽맥(葉脈)만 남기고 먹으며 5월중순~6월하순에 성충 한마리가 300립(粒) 내외의 알을 잎 뒷면에 약 60립씩 무더기로 산란한다. 난기는 11~12일로서 5월하순~7월중순에 부화하며 부화유충은 잎 뒷면에 머리를 가지런히 병렬(並列)하여 엽육(葉肉)만을 먹다가 성장하면 분산하여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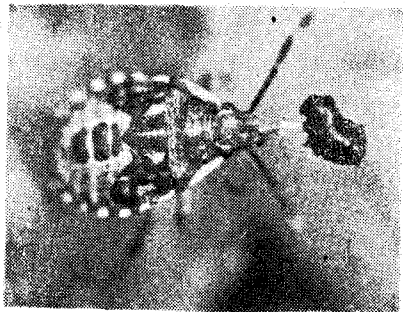
유충은 엽육만을 먹어 잎을 망상(網狀)으로 가해하기 때문에 잎이 붉게 변색되어 멀리서도 오리나무잎벌레의 발생을 알 수 있게 한다. 유충기는 20일 내외로 노숙유충은 땅속으로 들어가 흙집을 만들고 번데기가 된다. 번데기 시기는 6월하

순~7월하순으로 새로운 성충은 7월중순부터 우화하여 잎을 먹다가 8월하순부터 지피로 내려가 땅속에서 월동한다.

천적으로는 균류, 곤충류, 양서류, 조류 등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땅속에 있는 성충이 백강균이나 황강균에 침해되어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 ○ 방 제 법

유충 가해기인 5월하순~7월하순에 디프제 1,000배액, 나크 3%분제(ha당 40kg)등을 수관에 살포한다.



◇ 오리나무 잎벌레 유충을 가해하는 주둥이 노린재

## 밤나무줄기마름병

밤나무에 발생하는 중요 병의 하나로 대부분 상처를 통하여 병원균이 전염되며 특히 동해를 받은 부분에 많이 발생된다. 지난해 겨울은 근년에 볼 수 없는 혹한이 길어 금년에는 동해로 인한 밤나무 줄기마름병의 피해 만연이 우려된다.

이 병은 병원균이 환부에서 균사 및 자낭자 상태로 월동한 후 봄에 자낭포자가 바람, 비, 조류, 곤충에 의해 전염된다.

이 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므로 동해를 받은 가지는 잘라내고 자른 부위에 발코트를 도포하고 줄기에 동해를 받았을 때에는 수피를 도려내고 환부에 발코트를 발라 병원균이 침입을 못하도록 조치한다.

## 회양목명나방

회양목에 주로 발생하는 회양목명나방은 실을 토하여 회양목의 잎을 철하고 그속에서 잎과 싹을 갉아 먹으며 심할때는 잎을 전부 먹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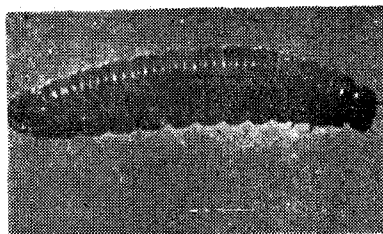
1년에 2회 발생하며 유충은 5월과 8월 상순에 다수 발생하고 성충은 6월과 8월에 출현한다.

이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유충 가해기인 5월과 8월에 디프수화제 1,000배액을 살포한다.

## 잣나무 넓적잎벌

유충이 여러개의 잣나무 잎을 거미줄로 잇대어 놓고 그속에서 잎을 가해하는 해충으로 대발생하면 짧은 기간에 심한 피해를 받아 나무가치가 앙상하게 나타난다.

1960년 초기에 경기지방에 대발생되었다가 1980년부터 경기(가평, 광릉)지방에 다시 발생되었다.



◇ 잣나무 넓적잎벌 유충

1년에 1회 발생하며 6~7월하순에 성충이 우화하여 잣나무 새잎의 상반부 안쪽에 1개씩 산란한다. 부화 유충은 잎의 기부로 내려와서 실을 토한다.

이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지중에서 월동하는 유충을 3월~4월 또는 10월~12월에 채취 포살하거나 6월하순~7월하순에 마라톤유제 1,000배액을 수관에 살포한다.